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여야 은평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어”

✎ 정민구 기자 | ㉠ 승인 2024.09.24 10:55

주민 주도 축제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 이뤄야



9월 12일 열린 은평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회의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구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 기획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9월 12일 열린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민, 전문가, 은평문화재단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은평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

히, 주민 주도형 축제의 중요성과 장애인 친화적인 포용성 확대,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희 의원을 비롯한 이동식·정병호·박세은·신봉규·이경술·오영열·김승엽 구의원으로 구성된 은평구 지역축제활성화 연구모임 주관으로 열렸다.

● 축제의 정체성 확보와 차별화의 필요성,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거버넌스와 협력 중요



2023 은평누리축제 (사진: 은평구청)

황은경 은평구청 문화정책팀장은 은평구 대표 축제인 벚꽃 축제, 은평누리축제, 파발제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하며, 각 축제가 고유한 매력을 지녀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벚꽃 축제와 다른 축제들의 포맷이 유사해지고, 외부 업체 입찰을 통한 축제 기획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외부 업체들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 다른 지역 축제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 팀장은 또한 축제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평문화재단 최영재 실장은 은평누리축제가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축제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가 은평누리축제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방식이 축제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예인 초청과 같은 프로그램은 외부 관심을 끌기 위한 필수 요소일 수 있지만,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리며 차별화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은평누리축제의 변화와 과제

제 10회

은평누리축제

2019.10.3목~10.5토

개막제

10.3(목) 17:00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축하공연 김장훈)

광장축제·폐막제

10.5(토) 축제의 광장(역촌역 4번출구)

11:00 광장축제

17:00 폐막제 (축하공연 양희은)

생활문화예술동아리한마당

10.3(목) 15:00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10.4(금) 16:00

불광천 수변무대

10.5(토) 생활문화예술박람회

11:00 축제의 광장

*은평누리축제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합니다. 개인컵(텀블러)과 장바구니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학습
다양성의 존중
아름다운 재발견

2024 은평누리축제

주민 참여자 1차 모집

모집기간 2024. 9. 11.(목) ~ 9. 25.(목)

축제개요

축 제 명

2024 은평누리축제

기 간

2024. 10. 3. (목) ~ 10. 5.(토)

장 소

불광천 일원(응암역 일대)

주요내용

개막 퍼포먼스, 참여형 공연, 체험부스, 생활문화페스티벌(공연), 버스킹, 거리공연, 미디어 전시, 대중가수 공연, 폐막식

모집개요

열린 마음으로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은평주민을 찾습니다!

모집분야	체험부스	생활문화 공연	참여형 공연 (오프닝)	홍보 서포터즈
모집인원	20팀 내외	10팀 내외	15명 내외	5명
활동내용	체험, 이벤트, 캠페인, 전시 등 부스 프로그램 운영	은평예술인, 생활문화 동아리 등 불광천 수상무대 공연	작품 개발 워크숍 4회 진행 후 개막일 공연 발표	(사전)사전 안내 및 홍보 (현장) 모니터링, 현장기록
활동기간	10. 3.(목) ~ 10. 5.(토)	10. 3.(목) ~ 10. 5.(토)	10. 3.(목)	유형별 상이

신청방법

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은평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체험부스 / 생활문화 공연 070 - 4174 - 1773

참여형(오프닝) / 서포터즈 070 - 4238 - 0955

공지사항
바로가기

2019년과 2024년 은평누리축제 포스터 비교.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나수아 이사장은 은평누리축제의 초기부터 관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발언을 했다. 나 이사장은 “은평누리축제가 2010년 은평구민 축제로 시작되어 주민 주도로 꾸러진 축제였으나, 최근 몇 년간 축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주민들이 주도한 축제 기획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으며, 대표적인 축제 상징이었던 손글씨체 ‘은평누리축제’ 로고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나수아 이사장은 또한 주민들이 축제 기획의 주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행 단계에서 단순히 선택과 운영에만 참여하게 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축제가 끝나면 다음 해 축제를 위한 준비가 바로 시작되는데, 예산이 이미 상반기에 결정된 상태에서 축제 추진위원회가 7월에 모집되어 8월 말에 결성되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주민들이 기획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평누리축제가 추구해왔던 주민 주도형 축제의 정신을 퇴색시키는 요소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의 컨셉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이사장은 “과거의 은평누리축제가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가수를 초대하는 등 축제와 다르지 않고 왜 누리축제라는 이름을 쓰는지 모를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나수아 이사장은 은평누리축제의 본래 의미와 주민 주도형 축제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북한산페스티벌에 참여해온 공중배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 감사를 통해서도 이어졌다. 공중배 감사는 “북한산페스티벌 축제 초기엔 주민들이 함께 기획단계서부터 참여해 축제를 만들어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행사가 열리기 직전에 만들어온 기획을 전달받고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사진: 은평구청)

● 장애인 친화적 축제 기획과 포용성 확대



역촌역 평화공원에서 열린 봄봄축제.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소라 팀장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은평구에서 개최되는 많은 축제들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라 팀장은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포용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광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축제 장소 선정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영화제



은평청년영화제 서종현 집행위원장.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청년영화제 서종현 집행위원장은 은평구에서 개최된 청년영화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영화제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행사로 다루어졌다. 서 위원장은 은평구 내에서 영화 촬영과 제작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관객을 유치하고 연신내와 같은 지역 상권을 영화제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종현 위원장은 “청년영화제를 통해 외부 방문객을 늘리고, 청년 감독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영화제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영화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진규 은평구 상공회의 수석부회장은 연신내 서머 스트리트 파티와 패밀리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는 예산 없이 시작한 이 축제가 구의원들과 구청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도입해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축제의 지속성을 높였으며, 상인들이 행사 운영과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았다. 황 부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연신내를 서울의 주요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화합을 위한 마을축제, 예산과 지원의 필요성



강찬선 증산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찬선 증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16개동 마을축제들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음향 장비와 무대 설치비에만 1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원되는 1200만 원으로는 축제 진행이 어렵다"며, 각동에 2천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예산은 마을 상점과 자영업자, 주민들의 도움으로 보충해 왔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자치적인 축제 운영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한 "마을 축제가 과장된 행사로 변질되는 것보다는, 따뜻하고 나눔과 배려가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치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